



1 토니상을 석권한 K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브로드웨이 버전 배우 헬렌 J 센(왼쪽)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대런 크리스. 2 '어쩌면 해피엔딩'은 2016년 초연됐다. 초연배우 김재범(왼쪽)과 전미도 등의 시로봇 연기가 교과서가 됐다. <사진 NHN링크>



2 '어쩌면 해피엔딩'은 2016년 초연됐다. 초연배우 김재범(왼쪽)과 전미도 등의 시로봇 연기가 교과서가 됐다. <사진 NHN링크>

“아내 그리워졌다는 관객, 토니상만큼 큰 칭찬이었죠”

지난 8일(현지시간)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의 토니상 석권은 K뮤지컬 전대미문의 쾌거였다.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6관왕에 올랐는데, 원작이나 실존 인물에 기대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오리지널 뮤지컬이라 더 놀라웠다.

작품상과 극본상·음악상을 공동수상한 박천후와 월 애런슨 콤비는 2008년 처음 만났다. 한국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하고 뉴욕대에서 시각디자인을 공부하던 박천후는 같은 학교에서 뮤지컬을 공부하던 월을 만나 절친이 됐다. 함께 노래를 만들다 2009년 월이 먼저 한국 창작뮤지컬 '마이 스케어리 걸'에 참여했고, '번지점프를 하다' (2012)로 첫 뮤지컬 공동작업을 하게 됐다.

박천후 작가는 브루클린의 한 커피숍에서 영국 가수 데이비드 앨번의 '에브리데이 로브'를 들으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친한 친구를 암으로 잃고, 오랜 연인하고도 이별한 상태였던 그는 점점 더 고통해지는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를 구상해 곧바로 월에게 문자를 보냈다. 공감대를 얻은 둘은 일사천리로 한국어와 영어 대본을 동시에 써내려갔다. 해피엔딩의 시작이었다.

서면으로 만난 박천후 작가는 이 작품의 의미가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첫 오리지널 스토리라는 데 있다"며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한국에선 월을 작

곡가라고 하지만 미국에선 저희 둘 다 작가로 통해요. 음표든 활자든 구분하지 않고 저희는 계속 쓰는 사람들입니다. 제 아이디어라고 해도, 함께 이야기를 짓고, 음악의 정서와 질감을 정하고, 매일 누구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협업하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정서도 비슷하고, 서로의 예술관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네 할 일' '내 할 일'을 구분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작업합니다."

브로드웨이 버전은 대학교 소극장 뮤지컬이 대극장으로 옮겨간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대극장과 소극장 뮤지컬은 문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박했던 대학교 버전과 달리 브로드웨이에선 무대전환이 많고 꽤 화려해졌다. 그런데 관객 반응은 놀랄만큼 비슷하다고. "뉴욕에서 먼 도시에 사는 어느 미국인 관객분 이야기를 읽었는데, 출장을 왔다가 10개 공연을 볼 예정 중에 우리 공연을 5번째로 보셨대요. 공연을 보는 내내 아내가 그림고, 함께 손을 잡고 이 공연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서 결국 남은 5개의 공연표를 팔고, 항공권을 바꾸면서까지 일찍 집에 돌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벨라타인데이에 아내와 함께 다시 이 공연을 보기로 했다더군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스물다섯에 유학을 간 그는 뉴욕에 살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훨씬 더 자각하게 됐다.

‘콤비’ 월 애런슨과 토니상 공동수상

노래 ‘에브리데이...’서 스토리 착안
브로드웨이, 소극장보다 화려하지만
뮤지컬 관객 반응은 놀랄만큼 비슷

한국·미국 문화잇는 작품 만들고파
모든 뮤지컬 창작자 응원하겠습니다

1930년대를 배경삼은 '일 테노레', 70년대 배경의 '고스트 베이커리' 등을 만든 이유다. "한국 관객들에게는 친숙하면서도 묘하게 낯선 질감의 세상을, 해외 관객들에게는 낯설지만 묘하게 공감되는 세상을 선보이고 싶었어요. '일 테노레'와 '고스트 베이커리' 모두 영어로 옮기는 작업을 할 계획이고, 좋은 파트너를 찾아야죠."

‘한국인 최초 토니상 수상 작가’가 됐으니 그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지난해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만큼이나 핫해진 건 사실이다. 전세계 뮤지컬 시장의 러브콜이 예상되는데, 그는 경계 없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에선 '일 테노레'와

‘고스트 베이커리’의 재공연을 해야 하고, 미발표 드라마 프로젝트도 있어요. 지난해 제 연출 데뷔작이었던 연극 '사운드 인 사이드'처럼 한국에는 덜 알려진 의미있는 작품을 번역하고 연출하는 일도 계속하고 싶고요. 뉴욕 배경으로 한국인 커플 이야기를 몇 년전 시나리오로 써둔 게 있는데, 더 늦기 전에 단편영화도 꼭 만들고 싶어요."

토니상 당일에도 레드카펫부터 작품상 발표까지 7시간이 걸렸지만, 지난 석 달간이라는 긴 '어워즈 시즌'을 마친 그는 다시 출발선에 섰다. "비평가상, 드라마리그와 드라마데스크를 거쳐 토니상까지 무수히 많은 행사에서 작품을 홍보해야 했어요. 브로드웨이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작가였던 제가 얼굴을 비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내성적인 성



박천후 월 애런슨

격에도 열심히 사람들을 만났죠. 토니상 무렵에는 마라톤의 피니시라인에 다다른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수상 이후 한 명의 창작자로서 생활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의지가 계속되는 한 작업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제 평생 서울과 뉴욕에서 보낸 시간이 거의 50:50에 가까워졌는데, 두 문화를 오가는 창작자로서 조금은 다른 관점이 되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이야기들을 만들어야죠."

그가 물건을 톤 브로드웨이 진출은 수많은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 2015년 트라이아웃 공연부터 꼬박 10년의 마라톤 같았던 여정이었다. 급변하는 세상에 요즘 세대들이 버티기 힘든 긴 호흡작업이 모른다. 그는 "빠른 성공을 위해 뛰어들이 좋은 직업은 아니"라고 했다. "공연은 평균 5년 이상 걸리는,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긴 시간 매달려야 하는 일이지만, 창작자 대우는 보잘 것 없는 게 현실이죠. 한국 뮤지컬 산업 역사가 짧으니 지금 흥행하는 공연들을 교과서처럼 따르기도 충분하지 않아요. 뮤지컬이란 창작진이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진심으로 이야기와 음악을 쓰고, 진정성있는 제작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제작해야 버틸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유주현 기자 yjyoo@joongang.co.kr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K뮤지컬 토니상 ... ‘아싸’들의 고생과 열정이 토양”

<아웃 사이드>

‘어쩌면 해피엔딩’ 초연 연출가 김동연

‘어쩌면 해피엔딩’은 2016년 대학교 초연 때부터 입소문이 자자했다. 쓰임을 다하고 버려진 AI 헬퍼봇들이 사랑을 배워간다는 판타지가 메마른 인간들에게 사랑의 의미를 각성시켰는데, 창작 초연답지 않게 만들새가 뛰어났다. 박천후와 월 애런슨 콤비가 만든 텍스트 자체도 아름답지만, 좋은 텍스트를 무대로 잘 옮긴 김동연(사진) 연출의 힘이 컸다. 2015년 트라이아웃 공연부터 줄곧 함께한 초연 연출가 김동연은 2018년 한국뮤지컬어워즈 연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동연은 연극 ‘세익스피어 인 러브’, 뮤지컬 ‘켄틀맨스 가이드’ 등을 만든 블루칩 연출가로, ‘유희 콤비’와 또 다른 창작뮤지컬 ‘일 테노레’도 만드는 등 인연이 깊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뮤지컬단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를 공연 중인데, 마침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의 줄거리가 한국 최초 창작 뮤지컬 제작기다. 1960년대 국가의 명령으로 오합

지졸들이 모여 “무조건 해피엔딩”을 외쳤던 뮤지컬 1세대들의 모충우들이 오늘의 K뮤지컬을 있게 한 토양이었다.

“‘어쩌면’이 토니상을 휩쓸 특별함이 많아요. ‘대본과 음악을 듣기 전에 줄거리만 듣고 참여를 결정했을 정도로 소재가 좋다. 익숙한 듯 새로운 듯 되게 재밌겠다 싶었는데 사랑, 기억, 인간성 같은 보편적인 정서와 주제를 담을 수 있는 소재였다. 음악도 너무 좋다. 오리지널 뮤지컬답게 스토리와 음악을 함께 만들었구나 생각이 드는, 굉장히 귀한 작품이다.”

“유희 콤비”의 협업 방식에 성공 비결이 있을 것 같다.

“스스로 ‘동업자정신’이라고 말하는 파트너십이 굉장히 좋다. 의견 충돌도 있지만, 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둘 다 미친 듯이 몰입하고 집중해서 굉장한 시너지를 낸다. 월은 엄



청 똑똑한 유대인 엘리트로 한국어도 수준급이고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한다. 휴는 문예창작을 전공하고 뉴욕에서 시각디자인을 공부하다 뮤지컬을 시작한 거라 글 뿐 아니라 시각적 상상력까지 예민한 친구다. 스토리는 같이 만들고 가사는 휴가 쓰는데,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가사가 월의 음악을 잘 이끌어낸다. 월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듯 휴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 문화를 터전으로 활동하니 둘의 협업이 잘 융화하는 것 같다."

‘어쩌면 해피엔딩’의 시그니처는 배우가 로봇과 인간 사이 여딘가를 연기하는 고유한 메소드다. 개발 당시만 해도 시로봇 연기가 생소했던 시절, 송하진 안무가와 초연 배우 전미도·김재범·정문성 등이 캐릭터 구축에 큰 공을 세웠다. “로봇인데 사람처럼 보여야 하는 톤앤매너는 안무가와 배우들이 많

이 대화하면서 움직임을 찾아냈다. 개그처럼 우스꽝스러워 보이면 안되니까. 비주열적인 부분은 미래면서 낡았다는 컨셉으로 접근했는데, SF영화의 디스토피아적인 게 아니라 따뜻한 LP같은 느낌을 찾아내야 했다."

“창작뮤지컬이 브로드웨이를 점령한 시점에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제작이 절묘했다.

“서울시뮤지컬단의 전신인 예그린악단이 국가주도 사업으로 뭔가 대단한 공연을 만들어야 했던 건 사실이다. 1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건이 굉장히 열악했다. 핀마이크를 써야 하는데 기술도 예산도 부족했다. 라이선스도 없이 외국작품을 흥내 내던 시절도 있었다. 그들은 아웃사이더였다. 성악가는 오페라를, 배우는 연극을, 무용수는 무용을 하는 게 정석이니, 순수예술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뮤지컬 하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춤추고 연기하고 노래하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술적 인정도 못 받고 대중들이 생소해 하는 시절을 견뎌낸 거다. 그들의 고생과 열정이 토양이 돼서 지금이 있다

는 이야기다."

“한국에 유독 창작뮤지컬이 많은데. ‘시장이 굉장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사랑을 비를 타고’ ‘김종욱 찾기’ ‘빨래’ 등의 작품이 대학로에서 소극장 연극을 대체하며 시장이 형성됐고, 마니 아이들이 생기니 실력 있는 배우들이 활동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환경이 흔치 않은데, 지원사업의 역할이 크다. 아르크 창작산실과 우란문화재단, CJ 등의 지원사업에서 매년 쏟아져 나온다."

“어쩌면 해피엔딩”도 SK케이블 우란문화재단에서 개발됐다. 창작 워크숍부터 트라이아웃, 뉴욕 리딩 공연까지 우란이 제작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초연 프로덕션의 지분(?)도 있지 않나.

“미국 프로덕션은 대본과 음악을 그쪽 제작진과 같이 많이 수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란에서 개발한 작품이고, 지원사업의 역할은 소중하다. 창작자들이 기대어 작품을 개발할 수 있을 만한 어딘가가 있다는 것부터 큰 기여라고 본다."

/유주현 기자 yjyoo@joongang.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